

해양스포츠 매니아의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에 관한 질적탐구

권일권 · 남상백*
(부경대학교 · *한양대학교)

Qualitative Inquiry on the Formation of Serious Leisure Experience for Water Sports Mania

Il-Kwon KWON · Sang-Back NA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formation of serious leisure experience for water sports mania using grounded theory method approach. Research participants were selected 6 water sports mania by reputational sampling method. Six participants who usually participated in water sports club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for this study included participants' observation and in-depth interview. This study categorized the coding paradigm which was presented by using the findings derived from data as they were into casual condition, contextual element, central phenomenon, critical situation, mediative element, interaction, final result and core category to draw out the process of becoming a water sports mania and its significances. The results of were as follows. First, water sports mania recognized the environmentally safe pleasure and value. Second, water sports mania was in a race against myself. Third, water sports mania felt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changes. Fourth, water sports mania was looking for alternative method. Fifth, water sports mania overcome physical limitations and liberation from fear of water. Lastly, water sports mania felt alive through the enthusiastic participation.

Key words : Qualitative inquiry, Water sports mania, Serious leisure experience, Formation

I.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생활의 질적 향상과 함께 경제적 풍요로움, 노동시간의 단축, 그리고 여가시간이 점차 증가하면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여가(leisure)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다양한 실외여가 활동(outdoor leisure activity)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Oh & Bae, 2011).

그 중 친수공간과 더불어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해양스포츠는 자신과의 경쟁을 뛰어넘는 고차원적인 스포츠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를 이룬다는 점, 그리고 인간의 숭고한 자연에 대한 끝없는 도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천혜의 자연과 접촉하여 모험심과 도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해 주는 해양스포츠는 단순히 해양레저를 즐기는 개념에서 휴식, 관광, 레저, 비즈니스 등 복합적인 여가활동으로 발

* Corresponding author : 010-7445-1184, nsb300@hotmail.com

전해 나아가고 있다(Lee, Shin & Park, 2008; Ha, Chang-Shin, 2011). 이러한 이유는 현대인들은 여가를 단순히 휴식의 의미보다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양스포츠는 개개인의 욕구만족과 자아실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차 매력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되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Kim, Lee & Kim, 2005).

이처럼 자연친화적인 해양스포츠 참여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높은 이유로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해안선이 12,000km에 이르고, 유인도서가 많아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적절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Yoon, Jun & Lee, 2011). 또한 참가자들의 동기와 참여형태가 과거의 보고 즐기는 형태에서 활동성이 강한 동적인 레저 활동으로 점차 그 패러다임이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바다를 중심으로 행하여지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마치 그 분야의 전문가처럼 참여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취미 정도가 아니라 전문가 수준으로 활동에 몰입하고 기술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해양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과는 달리 특별하게 구분되는 행동양식을 보이는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한 가지 여가스포츠 종목에 ‘집중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행태를 보이는 사람들, 이들을 일반적으로 ‘해양스포츠 매니아’라고 일컫는다(Jung, Sang-Woo, 2004).

매니아(mania)란 그리스어로 광기(狂氣)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어느 한 가지 일에 깊이 몰두하거나 열중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지만 매니아가 보통 전문적인 직업인이나 취미활동가들과 구별되는 것은 이들이 자신이 즐기고 몰입하는 대상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에 대해서 전문가 이상의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그것을 삶의 일부로서 즐길 때 비로소 매니아라고 불리게 된다(Kang, Jin-Koo, 2003).

이와 같은 경향의 기저를 설명하는 학문적인 용어가 ‘진지한 여가’이다(Lee, Chul-Won, 2004; Stebbins, 2001). 진지한 여가에 대한 연구는 Stebbins(1982)가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라는 논문에서 그 실체를 소개한 이후로 많은 여가학자들이 이와 같은 여가 성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Stebbins(1992)는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라는 단행본 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상 속에서 여가에 참여하다가 전문 직업인들처럼 특정 여가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가에 대해 캐나다와 미국의 실증적인 자료들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일상적 여가(casual leisure)’와는 반대되는 참여형태이다(Stebbins, 1987).

국내에서는 진지한 여가(serious leisure)에 대한 연구는 여가학 분야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진지하고 전문화된 여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에 대한 담론에 관한 연구(Bang, Woo & Hwang, 2015), 여가 모터사이클 참여자의 진지한 여가경험에 관한 연구(Seo & Kim, 2015), 진지한 여가 참여자로서 낚시인의 여가경력에 관한 연구(Oh, Se-Sook, 2014), 피트니스 참여자의 여가계약, 여가계약협상 및 진지한 여가의 관계연구(Kang, Lee & Cho, 2014)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또한, 덴 스포츠(Kim, Mi-Lyang, 2007), 스노보드(Roh, Lee, 2004), 수영(Seo & Kim, 2007), 서포터즈 팬 문화(Lee, Yeon-Joo, 2005) 등에서 진지한 여가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용어로 섞여 사용되어지고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어떻게 해양스포츠에 대하여 진지한 여가 경험을 형성하는 것일까? 이 질문이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며, 이는 단순히 ‘해양스포츠를 왜 즐기는가?’와 같은 동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다. 이 문제는 오랜 시간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형성된 감정,

상태, 느낌, 몰입감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구성되는지에 대한 다차원적인 (multi-dimensional) 분석을 필요로 하는 논제인 것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스포츠관련 매니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몰입 및 근거 이론적 접근을 통한 스키 매니아의 경험연구(Kim, Mi-Hyang, 2002), 스포츠 매니아의 확산 과정에 관한 연구(Kim & Kim, 2003), 스쿠버다이빙 매니아들의 운동동기 및 여가만족도(Yoon, Yong-Jin, 2004), 수영 매니아의 체험분석에 관한 연구(박지용, 2005) 등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긍정적인 해양스포츠 매니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이 매니아가 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기초연구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동안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떠한 상황들이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 영향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으로 도출된 결과를 규명하여 해양스포츠 매니아에 대한 경험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실체이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etic approach)을 이용하여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매니아 되기 과정을 심층분석하고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매니아의 경험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을 범주화 한다.

둘째, 해양스포츠 매니아의 경험과정에 대한 범주과정을 분석한다.

셋째, 해양스포츠 매니아의 경험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구축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이 진지한 여가체험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 체험이 형성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가에 몰입하여 체험하는 매니아, 진지한 여가, 전문적인 여가참여 등의 개념들에 대한 문헌연구(literature research)를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여러 해양스포츠 동호회의 훈련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이는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몰입수준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는지, 각각의 사람들과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는가의 내용을 예비관찰을 통해 패턴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둘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의 내면세계를 보다 심층적이며 다차원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관찰과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면담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자료 수집을 하는 동시에 코딩과 분석을 하였다. 코딩은 개방코딩과 축 코딩, 그리고 선택코딩을 하였으며, 아울러 지속적인 비교분석 방법을 실시하여 주개념을 산출, 이론적인 모형을 만들었다. 넷째, 자료 코딩에서 산출된 범주와 개념들의 연결과 통합을 위해 메모와 도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설계와 수집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분석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본 연구의 정보제공자들의 진지한 여가체험이 이루어지는 경로와 과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여가학전공 박사 2명과 스포츠심리학전공 박사 1명의 조언을 얻어 해양스포츠에 몰입하여 진지한 여가로서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구하였다. 동시

에 해양스포츠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수소문하였다. 이러한 연구정보제공자를 물색하는 과정은 세평적 사례 수집법(reputational sampling method)을 연구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자의 절친한 지인이 소속되어있는 해양스포츠 동호회에 수차례 동행하여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예비면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6명이 선정되었다. 또한 해양스포츠 동호회에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구보조자가 주요 정보제공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2015년 8월 20일 부터 10월 23일까지 약 2달간의 노력 끝에 해양스포츠 동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총 6명의 연구체보자가 <Table 1>과 같이 선정이 되었다.

3. 자료수집 방법

근거이론에서는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의 개념이 중요한데, 이 개념은 자료 속에서 중요한 것을 파악하여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적 자질을 의미한다(Seale, 1999). 본 연구의 연구자는 자료수집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양스포츠 매니아의 다양한 사회현상과 진지한 여가생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같은 환경에서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이 어떠한 상황 하에서 몰입의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실천하고, 무슨 감정이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고자 노력

하였다. 또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는 동안 연구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를 서술하고, 이론적인 전제와 문제들을 제시하여 연구의 자료수집의 신뢰도를 높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관찰(participation observation)과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스마트폰 동영상분석, 현장노트(field note)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의 상호보완적 해석과 신뢰성 부분에 집중적인 재확인을 통하여 삭제와 재해석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1) 심층면담

본 면담에 앞서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의 다양한 정보와 면담범위를 구성하고자 연구체보자(50대 1명, 30대 1명)를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예비면담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면담범위와 내용을 설정하였다. 면담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 참여자들과 수차례 동행하며 라포(rapport)를 형성한 후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에 따라 1~2회의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면담 1회에 짧게는 15분, 길게는 6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이상적인 접근을 위해서 2~3주 간격을 두고 2차면담에 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Duffy, Ferguson & Watson, 1997)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편의를 위해 비교분석 시간을 가지면서 2~3주 간격으로 2차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핵심범주의 도출을 위해 3차면담은 3~4주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earch Participants

	A	B	C	D	E	F
Gender	Male	Male	Female	Male	Male	Female
Age	24	37	32	51	45	28
Job	University student	Self employment	Product manager	Teacher	Self employment	public officer
Experience	5	12	10	15	7	6
Marriage	Single	divorced single	Single	Married	Single	Single
Participation Sport	Surfing	Wind-Surfing	Scuba diving	Jet ski	Water ski	Surfing

* Expressing for research participants have alphabet

후에 이루어졌다. 면담방식은 특정 현상을 바로 질문하는 구조화된 면담방식과 일반적인 상황까지를 질문해 나가는 반 구조화된 면담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해양스포츠참여 일정 에 맞추어 진행하였고,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편안한 장소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담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순환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스마트폰 녹음기로 녹취하였다.

2) 참여관찰

본 연구자는 해양스포츠 매니아에 대한 사회적 현상과 진지한 여가체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부산광역시 H구와 S구에 위치한 해양스포츠 센터 및 서핑학교를 직접방문, 해양스포츠 매니아의 행동들을 간헐적으로 유심히 관찰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지인이 소속되어있는 해양스포츠 관련 모임에도 참석하여 어떠한 사회적 분위기와 몰입행동이 유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참여관찰 기간 중 해양스포츠 센터 및 서핑학교 담당자 및 직원 등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연구를 착수하기 전 단계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3) 관찰자료 수집

본 연구자는 관찰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훈련 및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술관찰(descriptive observation)을 수행하였는데, 관찰 참여자의 행동, 태도, 환경, 사건, 시간, 목적, 연구자가 느끼는 감정과 판단 차원의 관찰 내용을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집중관찰(focused observation)단계에서는 서술관찰을 통해 수립된 구조적 질문에 근거를 두고 초점을 좁혀 관찰대상만을 관찰하였다.

4. 자료의 분석

관찰, 심층면담과 문서 등의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Glaser(1998)의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과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는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전사(transcription)하였다. 둘째, 다양한 주제별 약호화(encoding)를 위하여 개방적 코딩방법을 활용하여 요인들을 범주화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와 불필요한 자료를 구분하는 세그멘팅(segmenting)을 거쳐, 일련의 반복되는 내용, 의미, 주제들을 분류하여 특정 텍스트의 내용이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주제적 용어를 부여하였다. 셋째, 수집된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범주, 의미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과정을 통해 범주화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5.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

본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내적 타당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성원간 검토(member check), 다각 분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참여자의 확인은 연구의 윤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분석결과를 연구 참여자와 함께 공유하며 분석해 나갔다. 또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가학 교수 1명과 스포츠레저학 박사 및 질적연구가 3명의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거쳤다.

6. 연구의 윤리성

질적연구에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는 연구의 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본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Table 2> Formed serious leisure experiences in water sports enthusiasts categorization

Classification topic	Lower categorization	Key concepts
Pleasure and value perception	merit recognition, characteristics of recognition, value perception	thrilling, freedom, communication, harmony and balance, health,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mystique, cool, be active, positive thinking, self-confidence, change of recognition, value cognition
Fighting with myself	force of will, technical effort, pushing the limits	target consciousness, win a battle with oneself, promotion of the process of immersion, rise of willpower, feel feeling of gladness, professional pursuit of knowledge, systematicness acquisition of technology, professional instructors back to assault, information retrieval, confidence in myself, I can do it
Changes in social environment	increasing public interest, Increasing participation of space	increased participation of a place, change of weekend leisure activity, five-day workweek system, variety of weekend program, variety of information, rise in adventure sports, program related tv, shift to a leisure sports fitness
To find alternative	efforts to increase the level of skill, parallel with other sports, work with people around, economic efforts	conversations about the sports skill, attending other events, participation family, installment savings account, checking relatively inexpensive price, devoted to one's family, purchased expensive equipment, join the club and activities, be accompanied tour, repeated practice, closely watching, continuous efforts
With difficulty of physical performance	overcome the psychological burden, get over their physical testing time	limit strength, fear of water, lack of self-confidence, risk of injury, marine accident case, anxiety they may someday hurt, psychological insecurity
Participation as a passionate enthusiasts	change in behavior and attitude, inner maturity, formation of a new personal relationship	part of life, my daily life, consider change of occupation, self-respect pride, have expectation, enjoyment of the act itself, stress relief, plan health promotion, they were meeting with a variety of people, display understanding, common agony, sense of closeness, sense of belonging

연구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얻었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한 면담 시 스마트폰 녹음기의 사용여부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이용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1. 즐거움과 가치인식: 자연친화적 즐거움의 발견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즐거움과 그에 따른

여가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해양스포츠는 재미의 개념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스포츠로 매니아들에게 몰입(flow)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핑하면 다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생소하던 스포츠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 들어가고부터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요, 우선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던 저는 계속 할 거예요(24세, A씨).

이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제가 취미로 즐기다가 이제는 저도 매니아가 되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어떤 일에 푹 빠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무

엇보다도 자연친화적인 스포츠라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도 좋게 생각하는 것 같고, 나 자신도 건강하게 삶을 즐긴다는 점에서 자부심이 있다고나 할까?(32세, C씨).

살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주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바다란 자연에서 한 주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며 걱정거리들을 날려버리고 스릴을 만끽할 수 있어서 제일 좋죠. 일상탈출? 성취감? 이런 것 자체가 저에겐 기쁨인거죠(45세, E씨).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여가스포츠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감정상 흥분을 야기 시켜 스포츠에 몰입하는 재미(fun)요인이 동반되어 사회문화적 활동, 타인과의 교체, 성취감등을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보면, 재미를 경험하는 것은 활동참가의 성공경험이 몰입으로 연결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스포츠참여의 재미요인은 몰입경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Kim, Young-Mi(2005), Jang, Ho-Joong(2008)에 따르면, 재미요인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심리적 경험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성취감도 정신몰입경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자연을 배경으로 대부분 종목이 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그 자체만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자신의 도전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외적 즐거움이 몰입경험을 통해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im & Kim(2003)은 ‘매니아 문화’에 대해 적극성, 전문성, 긍정적 사고, 희생정신 등의 특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행복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Park, Soo-Jung(2004)의 전문적 여가스포츠 경험연구에서 밝힌 결과들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일반적 여가스포츠 참여자에 비해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자신이 직접주체가 되

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자가 해양스포츠 종목을 접하고 나면 더욱 그 활동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우선 환경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참여자들의 수요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자신과의 싸움의 과정을 통하여 매니아가 되기 위한 노력을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목표의식인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보다 호흡도 많이 모자라고 해서 평소 때는 헬스장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쪽계통의 매니아가 다 그렇듯이 멋진 해외 다이빙 포인트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32세, C씨).

기술적으로 탁월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기술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겠지만.....참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정말 잘하는 분에게 강습도 다시 받아보고 했어요(37세, B씨).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를 즐기면서 있어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즐기겠다는 의지를 통해 희열감과 성취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실력이 점차 향상됨을 느끼면서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행동의 표출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양스포츠라는 종목 특성상 자연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계에 도전하는 고독한 싸움에서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것이 성취감을 이끌어내고 진지한 여가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Lee & Im(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권태로운 일상에서 건강을 위한 스포

츠참여의 수준을 넘어 창의적이고, 스틸 넘치는 극한 상황,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해양스포츠에 몰입하여 진지한 여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적 환경의 변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의 변화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의 변화는 매니아로 발전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기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핑하면, 외국에서만 하는 스포츠라고 생각했죠. 근데, 요즘은 부산만 하더라도 광안리나 송정 같은 곳에는 서핑관련 샵이나 강습해 주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리다 보니 주말에 파도 좋은 때는 바닷가에 새카맣게 서퍼들 떠 있는 것을 종종 봐요. 그 중에서도 진짜 매주 오는 사람이 대부분인걸 보면 매니아들은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28세, F씨).

관련 업체들이 많아지긴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처럼 해양스포츠에 미친? 사람들만 거의 즐기다시피 했다면, 요즘에는 관광 온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놀러 왔다가 한번 경험하고 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러다 빠지는 거죠. 내가 아는 형님은 한번 놀러온 김에 모시고 왔다가 매니아가 되었는데, 주위에서 제트스키 탄다고 하면 좀 좋게 봐주시는지 더 빠지게 된다더라고요(51세, D씨).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에 있어 사회적 환경변화 즉, 해양스포츠 저변의 확대 및 해양스포츠 인식의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참여가 확대되고 매니아층을 형성해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여가스포츠 활동은 하나의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현상으로서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고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Ma, Se-Keun, 2011). 특히, 해양스포츠는 그 저변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카약, 모터보트, 크루저 요트 등 다

양한 해양스포츠 종목이 가족단위 레저문화(leisure culture)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Lee, Jong-Gil, 2013). 이러한 다양한 종목과 안전한 시설의 확충은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에게 더욱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매니아층의 형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대안 찾기: 기술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기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함은 물론 매니아로서 위기상황을 벗어나려는 자신만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핑은 대부분 날씨가 좋은 날 하는 것이 드물어요. 파고가 높으려면 당연히 곳은 날씨가 아니깐 거의 비올 때 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파도라는 것이 예고하고 일정하게 오는 게 아니라서 좋은 파도 왔을 때, 당장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바람정보나 실시간 파도 정보를 통해서 시간여유가 되면 바람 좋을 때 웬만하면 찾는 편이에요(28세, F씨).

혼자만 주말에 샵에 장비 맡겨놓고 타다보니 집에서 불만이 많지. 나 같은 경우 비오거나 춥거나 하지 않고, 집안 행사가 주말에 없는 한 거의 매주 타러 오거든요. 하루는 아내가 충돌사고를 뉴스에서 보고 취미를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성화더라고. 그래서 웬만하면 몰래 나가고 집안일도 잘 돕고 하죠. 내가 이렇게 까지 하면서 즐겨야 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51세, D씨).

바람 잘 타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울 거야... 누구나 겪는 경험이잖아요. 기술이 혼자 독학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실력 늘리고 싶다는 사람들 보면 동호회에 가입하라고 해요. 동호회라면 자기 같은 사람들 모여서 정보도 공유하고 장비도 공유하고 아무래도 실력이 늘 수밖에 없거든요(37세, B씨).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시, 개인적 위기상황으로 중심현상이 전개되는데 억제요인으로 기술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의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과정을 해양스포츠 매니아가 되면서 '전문적'으로 해양스포츠 종목에 참여하고, 해양스포츠의 매력을 체득하게 되며, 내재적으로 더욱 더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욕구가 발전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해양스포츠 참여에 여러 장애(벽)에 부딪쳐 매니아들을 힘들게 하지만 대안 찾기를 통하여 기술향상에 대한 시간투자 및 동호회 가입 및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진지한 해양스포츠체험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매니아의 잠재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Kim & Park(2008)은 스킨스쿠버 매니아 경험과정의 의미에 관한 연구에서 성취감과 자신감, 모험스포츠에 대한 도전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스쿠버다이빙 참여가 열정적으로 지속됨에 따라 매니아적 행동과 태도가 형성되고 유지되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매니아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매니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면, 마케팅적 기저효과(base effect)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신체적 능력의 한계 : 자연과 물의 공포로부터 해방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며 자연과 물의 공포로부터 벗어남으로서 매니아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상스키 타다가 몇 년 전에 크게 다쳐서 허리부터 다리까지 저리는 증상이 꽤 오래 지속되었어요. 다들 미쳤다고는 하는데,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끝내 재활하고 지금은 조심히 타고 있는데, 아직도 부상이 염려는 되지만....그 희열감을 잊지 못해 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한번 크게 부상을 당해서 인지 더욱 더 조심히 타게 되죠(45세, E씨).

다른 투어지에서 다이빙사고소식을 듣거나 하면 한동안 바다에 들어갈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날씨가 좋고 장비를 잘 챙긴다고 해도 사고 나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겁이 종종 나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심리적 부담 때문에 더 하게되는 것도 사실이고요(32세, C씨).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시에 자연과 물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심리적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통해 극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여러 가지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일련의 계획된 행동을 지속해나가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이에 Roh, Jae-Hun(2013)의 동계 여가스포츠 매니아에 관한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는데, 매니아들은 일반적으로 몰입(flow)경험을 겪으면서 반대로 몰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내적인 이유로는 목표의식을 상실, 자신감 상실과 권태감이 주요인자로 등장하였는데, 외적으로는 경쟁력 상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심한 부상 등이 몰입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패경험과 한계 등을 극복하면서 해양스포츠 매니아로서의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을 심화해 나가며, 부상에 직면할 부정적인 몰입경험이 많아지지만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을 잘 극복해 나가면서 진정한 매니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6. 열정적인 매니아로서 적극적 참여: 스포츠자체의 재미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낌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시에 자신이 열정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스포츠자체의 재미(fun)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고 상당한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해

양스포츠 종목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동호회를 통해 관심의 공유 및 다양한 계층과의 만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빙하는 것이 이제는 제 삶이 되어버렸어요. 매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느끼는 나만의 자유라고 할까?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음에 내 자신에게 감사해요(32세, C씨).

서핑을 즐기는 자체가 행복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일상에서 받은 업무스트레스나 어려움도 이제는 서핑하러 오늘 날을 기다리며 극복하고 있으니, 서핑이 완전 제 생활이 되어버렸다고 할 수 있죠. 서핑을 즐기지 못할 상황이 온다면 아마 월급은 조금 받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곳으로 이직할 생각도 있어요(28세, F씨).

여기 동호회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분들이예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가선용을 한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깐 어울리는 것도 여유가 좀 있어요(45세, E씨).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이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과정에서 스포츠를 즐긴다는 자체 만으로의 기쁨과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형성된 인간관계를 통한 친밀감과 소속감은 매니아들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Kim, Young-Jae(2005)의 스키매니아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가 본 연구를 지지해 주고 있는데, 참여자들은 즐거운 자극으로 동경심, 대인관계, 타인의 관심과 우월성의 성취감 등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니아들은 자신의 경험과정을 타인들과 공유하고 싶어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단순히 해양스포츠를 통해 시간보내기,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일상적인 단계를 넘어서 지속적이고 열정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아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매니아적 즉, 열정적인(enthusiastic) 활동이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해양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때 긍정적인 여가 경험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양스포츠 종목은 타 종목과 비교해 볼 때, 시간 투자와 경제적인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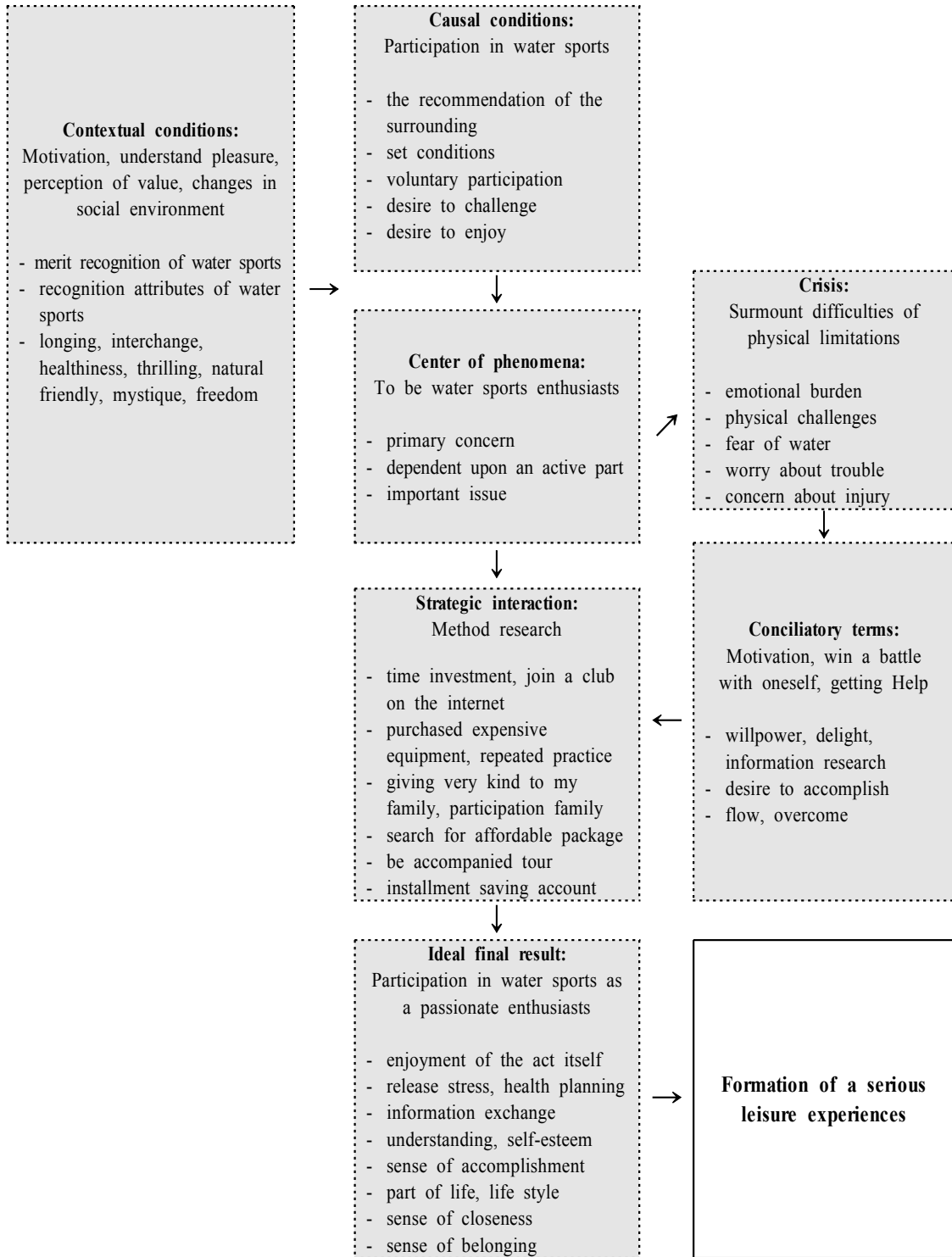
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기만족, 정체성 확립 등의 개인적인 만족은 물론, 사회적인 교류를 통한 타인과의 친밀감 유지, 소속감 형성 등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해양스포츠 적극적 참여활동을 통해 부정적 경험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해양스포츠를 참여하는 동안 자신감과 극복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면서 더욱 더 참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도식화 것은 다음과 같다(Fig. 1).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이 해양스포츠 종목에 참여하는 동안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들이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그 영향요인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여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의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체이론을 구축하고 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etic approach)을 이용하여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매니아 되기 과정을 심층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과정에 있어서 자연친화적인 즐거움과 그에 따른 여가스포츠로서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자신이 직접주체가 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동으로 그대로 옮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환경적인 인프라를 구축하여 참여자들의 수요를 극대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 Water sports enthusiasts paradigm for the formation of a serious leisure experiences model

둘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를 즐겁게 있어서 자신과의 싸움을 통하여 즐기겠다는 의지를 통해 희열감과 성취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해양스포츠에 몰입하여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지한 여가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과정에 있어서 사회적인 환경변화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환경의 변화는 매니아로 발전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기저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한 시설의 확충은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에게 더욱 높은 만족도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유도를 통해 매니아층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과정에 있어서 기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함은 물론 매니아로서 위기상황을 벗어나려는 자신만의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니아의 행동과 태도를 면밀히 관찰하여 매니아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면, 마케팅적 기저효과(base effect)를 기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에 있어서 자신의 신체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며 자연과 물의 공포로부터 벗어남으로서 매니아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경험과 한계 등을 극복하면서 해양스포츠 매니아로서의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을 심화해 나가며, 부상에 직면할 부정적인 몰입경험이 많아지지만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을 잘 극복해 나아가면서 진정한 매니아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섯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 시에 자신이 열정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스포츠자체의 재미(fun)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고 상당한 만족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린 해양스포츠 종목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동호회를 통해 관심의 공유 및 다양한 계층과의 만남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스포츠 종목에 참여할 때 긍정적인 여가 경험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양스포츠 종목은 타 종목과 비교해 볼 때, 시간 투자와 경제적인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의 다양한 종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다소 종목별 편중성이 존재하였으며, 각 종목의 특성상 매니아들의 수준이 다르게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종목 중 매니아 수준이 가장 높은 종목을 선별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해양스포츠는 종목의 특성상 계절적 편중성을 보이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참가 빈도, 참가강도, 참가시간 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셋째,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의 진지한 여가체험 형성되는 과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통합적인 해석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여가체험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특정 여가장소에 대한 관여도(involverment), 장소애착감, 레크리에이션 전문화이론, 종목 과제의 특수성 등을 통합적으로 적용해보고 해석한다면 해양스포츠 매니아들은 어떻게 여가경험을 구성해 나아가고,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존재하는 여가계약과는 어떠한 타협전략(negotiation strategy)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사회심리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Bang, Shin-Woong, Woo, Hyo-Dong, & Hwang, Sun-Hwan(2015). Indeed, Do Specialized and Serious Leisure Improve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9(1), 1~15.
- Duffy, K., Ferguson, C., & Watson, H. (1997). Data collecting in grounded theory-some practical issues, *Nurse Research* 11(4), 67~78.
-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Mill Valley. CA: Sociology Press.
- Ha, Chang-Shin(2011).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marine sports learning by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ang, Ho-Joong(2008). Causal Relationship between of Enjoyment Factor of Water Sports and Continuous Behavior,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3), 153~163.
- Jun, Sang-Woo(2004). Sport motiv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scuba diving mani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ang, Hee-Yeub, Lee, Chul-Won, & Cho, Nam-Heung(2014).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gotiation and Serious Leisure for the Participants in Fitnes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3(6), 387~400.
- Kang, Jin-Koo(2003). Culture and beliefs: Culture reading; Mania: a new era of pop culture human. *Hwalchunsa*, 597(8), 66~67.
- Kim, Jin-Sung & Park, Byung-Kook(2008). Process of Becoming a Mania in Scuba Diving Participant, *Korean Society for the Sociology of Sport*, 21(2), 267~283.
- Kim, Mi-Hyang(2002). A Study for Ski Manias' Experience through the Grounded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1(5), 323~335.
- Kim, Mi-Lyang(2007). The Relationship among Leisure Attitude, Leisure Func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Dance Sports Participant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1(1), 73~84.
- Kim, Mi-Lyang, Lee, Yeon-Ju, & Kim, Dong-Jin(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Ski Mania Level and Leisure Diagnostic Battery,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4), 627~634.
- Kim, Seok-Hee & Kim, Jung-Myung(2003). Soccer Mania = Growth of Sports Mania,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2(3), 45~61.
- Kim, Young-Jae(2005).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University Students' Ski Circles Athletic, and their Satisfaction with Sport Flow,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24(1), 509~515.
- Kim, Young-Mi(2005). The Influence of Enjoyment of Dance sports on Leisure Flow Experience and Leisur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6), 193~202.
- Lee, Chul-Won(2008). Analysis on the formation of serious Leisure experience for running mania,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2(2), 115~127.
- Lee, Jin-Mo, Shin, Yong-John, & Park, Jin-Soo(2008). A Study for the Vitalizations of Marine Leisure Sports; Analyses on the recognitions for the Marine Leisure Sports and their Current State-of-the-Art, *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32(8), 645~652.
- Lee, Jong-Gil(2013). A Structure Analysis of Causal Relationships among Attributes of Marine Sport Destination, Hedonic & Utilitarian Value, and Satisfaction with Tourism,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37(1), 105~122.
- Lee, Sang-Gu & Im, Jun-Taeg(2003). The Effects of Flow, and Self-actualization on the Participation Degree of Extreme Sports among Adults, *Korean Society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19(2), 1373~1384.
- Lee, Yeon-Joo(2005). Korean Football Supporters Culture as Serious Leisur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2), 553~563.
- Ma, Se-Keun(2011).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n positive behavior in leisure sport mani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Seoul.
- Oh, Eung-Soo & Bae, Sung-Woo(2011). The Influences of Marketing Mix Factors for Marine Leisure Sports on the Satisfaction of Service Quality,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Science*

- 20(6), 737~745.
- Oh, Se-Sook(2014). An Explorative Study on Leisure Careers of Anglers as Serious Leisure Participants, *Journal of Korean Wellness* 9(2), 79~90.
- Park, Soo-Jung(2004). The model building study of Flow Experience, Leisure Attitude and Serious Leisure Sports Experience by leisure participants,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5), 719~727.
- Roh, Hye-Young & Lee, Chul-Won(2004). Analysis on the Lived Experience of Snow Board as Serious Leisur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3(4), 671~683.
- Roh, Jae-Hun(2013). The Casual Model of Relationships among Level of Mania, Sensation Seeking Tendency, Exercise Emotion and Continuous Behavior Intention of Winter Leisure Sports,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53(1), 453~470.
- Seale, C. (1999). *The 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 Seo, Kwang-Bong & Kim, Byung-Hoon(2015). Qualitative Study of the Serious Leisure Experience for Motorcycle Leisure Participant, *The Korean Association for Qualitative Inquiry* 1(1), 127~152.
- Seo, Yong-Seok & Kim, Yong-Keun(2007). The Serious Leisure Experiences in the Festival, *The Journal of Tourism Studies* 19(1), 141~155.
- Stebbins, R. (1982). Serious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Pacific Sociological Review* 25, 251~272.
- Stebbins, R. (1987). Casual leisure: A conceptual statement. *Leisure Studies* 16, 17~25.
- Stebbins, R. (1992). Amateurs, professionals, and serious leisure.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Stebbins, R. (2001). New direction in the theory and research of serious leisure. Lewiston, NY: The Edwin Mellen Press.
- Yoon, Yong-Jin(2004). Sport Motivation and Leisure Satisfaction of Scuba Diving Mania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15(4), 51~64.
- Yoon, Yoo-Sik · Jun, Jae-Kyoon, & Lee, Sang-Ho(2011). A Study on Market Segmentation based on Participation Motives - Participants' Satisfaction, Loyalty, Preference, and Promotion Directions in Marine Leisure Sorts, *Korean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26(2), 265~281.

-
- Received : 29 October, 2015
 - Revised : 06 November, 2015
 - Accepted : 13 November, 2015